예수님의 틈새시장 전략

(막5:35-41)

35.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7.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8.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41.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틈새시장 전략>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틈새시장이 뭡니까?
기존에 제품군이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유사한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과 관련되어서 소비자들의 마음에 뭔가 아직 가려운 데를 정확하게 긁어주는 느낌의 제품이 없습니다.
요걸 찾아내는 거예요.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뭔가 옷을 껴입고 옷 위로 긁는 것처럼 아주 확 시원하지를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비자들이 기존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정말 까놓고 시원해하지를 못하

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미 시장이 빡빡하게 형성이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소비자들의 필요를 찾아내면서 틈새를 찾아내는 거지요.
그걸 바로 틈새시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김치냉장고 '딤채'입니다.
이 김치냉장고가 왜 생겼느냐?
김치를 상온에 보관하면 시어버리니까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거의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면서 김치를 묻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냉장고에 김치를 넣어두니 당분간은 시원하고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냉장고를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김치냄새가 날뿐만 아니라, 단순히 온도만 찬 것이지 그 땅속에 묻었다가 꺼냈을 때 김치에서 나는 쨍한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김치를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need가 자꾸자꾸 고조됩니다.
이때 그 필요를 탁 낚아챈 것이 김치냉장고라는 거예요.

또, 마을버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버스라고 하면 큰 대로를 가야 되는 건줄 알고 있고,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접근하려면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가야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을버스라는 게 생겨납니다.
이게 바로 교통의 틈새시장을 파고든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이지요?

이렇게 틈새시장만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 적은 자본을 가지고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요새 블루오션, 피 튀기는 경쟁인 레드오션에 대항하는 블루오션,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창조와 함께 이 틈새시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틈새시장을 찾아내서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틈새시장을 원조격으로 이 땅에 실현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틈새시장을 공략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내게 있어서 주님의 틈새시장이 먹혀들어가야 그것이 곧 믿음이 성립될 수 있는 기본 전제입니다.
예수님의 틈새시장 전략이 나에게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마태에도 누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하는 동안에, 마태복음에는 이미 죽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다 합쳐서 각기 자기의 신학적 특성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그렇게 썼다고 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죽기 바로 직전에,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혈루병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가뜩이나 야이로는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될 판인데, 예수님의 걸음이 지연됩니다.
그 여인이 자기가 12년 동안의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고생했다는 얘기를 주저리주저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나았으면 됐지 어서 예수님이 가시도록 비키라고 그 여인을 발로 뻥 차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맞장구를 치시면서 그 여인과 얘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선생, 세상의 모든 학박사, 세상의 모든 지식 있는 자들, 세상의 모든 능력 있는 자들은 죽음 이전까지만 유용한 것이죠.
죽음 이후부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틈새시장 전략이 드러나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야이로가 지금 딸이 숨이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며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찾아와 강청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형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루병에서 고침 받은 여자와 지금 한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틈새시장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을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두려워말고 믿기만 하라는 틈새시장 전략을 얘기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42절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여자아이가 열두 살이라는 것은 이제 성인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만으로 열두 살 되는 그 날에서 가장 가까운 안식일에 성인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 성인식의 내용은 이제부터 이 아이가 '바트 미쯔바' '율법의 딸이 되었다', 즉 이제까지는 아빠의 말 엄마의 말만 듣고 가정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열두 살 된 이후부터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결혼해서 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혼이 가능한 겁니다, 결혼 전에 있는 정혼이 가능하게 되는 나이가 열두 살입니다.

그러므로 열두 살의 의미라는 것은 태어나서 이제까지 부모 밑에서 자라던 이 아빠와 딸의 관계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견을 따른다는 얘기에요.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의견을 아빠의 의견보다 먼저 따라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빠의 기호, 아빠의 성격, 아빠의 인생관, 아빠의 신념체계, 이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자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열두 살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삼자관계가 올바른 구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의 관계에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삼자관계를 맺고 있는데, 아담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와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이요, 하와의 첫 번째 관계도 하나님이고, 둘 다 하나님을 관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주십니다.
부부로 맺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각자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무를 먼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관계를 깨버리고 둘이 야합을 하게 됩니다.
둘이 마음을 합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타락이 일어납니다.

자, 아버지와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커서 하나님에 대해서 독자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혈루병 여인과의 이야기 앞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발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린 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야이로가 '어린 딸'이라고 얘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우선, 딸이 예뻐요, 예쁘기 때문에 두려워요, 혹시 어디 다니다가 다칠까봐.
'불면 날아갈새라 만지면 꺼질새라', 어린 딸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말하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인 아빠의 마음속에 딸이 강력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딱 달라붙어있다는 것입니다.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두 살이 돼서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 나이가 되었는데, 어린 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딸을 하나님과 독자적인 관계를 맺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내놓을 수가 없을 만큼 마음이 붙잡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개입되어야 되는 삼자관계에 틈새가 없습니다.
주님의 틈새전략이 어떻게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죽음을 기다립니다.
강력접착제로 붙여놓은 것 같은 딸에 대한 이 아빠의 접착력은 죽음이 아니고서는 틈새를 벌

릴 수가 없고, 딸과 아빠가 떨어지는 틈새가 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삼자관계의 구조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었던 가장 이상적인 삼자관계의 구도가 형성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틈새가 없으니까.
이 틈새를 벌리는 것, 모든 관계, 찰떡처럼 붙어있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들어가서 삼자구도를 이루려면 틈새가 있어야 하는데, 이 틈새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죽음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 딸이 죽었지만 죽음에 의해서 딸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딸을 내가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만 들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기만 하라'라는 말이 붙어있으면서 딸을 잃지 않을 것을 믿으라는 말이 아닌 게 돼버린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기만 하라', 나를 믿으라는 얘기에요.
나를 믿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믿기만 하라'는 말이 붙여지면서 무슨 말이 되느냐?
믿는다는 얘기는 내 심장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얘기에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네가 이제까지 네 마음에 찰떡같이 붙어있는 열두 살인 딸을 '어린 딸'이라고 느끼면서 마음을 딸에게 주었는데, 그 딸이 죽었으니 딸에게 주던 그 마음, 딸의 자리에 나를 세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서있는 자리에서 딸을 치워버리고, '믿기만 하라'는 얘기는 '나를 딸의 자리에 세우고 딸에게 주던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그러면 딸과의 관계가 열두 살이 되어서 율법의 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딸이 너의 딸로서 삼자구도를 이루어서 올바른 관계가 될 것이다'라는 얘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딸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깁니다.
'더 이상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죽게 될 그 딸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딸에게 주던 마음, 딸의 자리에 나를 세워두고 나에게 마음을 주어라', 이게 '믿기만 하라'는 얘기죠.
틈새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이 관계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 물건, 일에 대한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틈새전략은 죽음을 통해서 틈새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사업을 무지하게 사랑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과 나와 하나님이 삼자관계의 구도를 형성해야 됩니다.
삼자관계의 구도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 하면, 사업은 사업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할 수 없을 만큼 나와 사업이 붙어있습니다.
이럴 때 유일하게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틈새를 마련하려면 사업을 망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진짜 딸이 죽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진짜 딸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서 틈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모든 관계에 틈새를 만들어서, 하나님아버지와의 가장 온전한 낙원에서 에덴에서의 그 완벽한 삼자관계의 구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음만이 틈새를 내니까…

죽음만이 열두 살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 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아빠와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온통 다 빼앗겨지고 있는 사랑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틈새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딸을 일으켜 세워서 아빠인 야이로와 아빠와 딸의 관계로 맺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딸과 어제 그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만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아빠와의 관계는 하루살이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워주시면, 잠들은 딸이 그대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 동안 딸로서 아빠로서 관계를 맺고 살다가 또 예수님이 데려가시면 끝나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예수님이 깨워서 '달리다 굼' 맺게 해주시는 그 허락 한도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지, 내가 먼저 틈새가 없이 사업을 붙들고 있고, 자식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건 믿음도 뭣도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틈새시장을 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관계가 거듭나려면, 구원 받은 관계가 되려면, 틈새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각자가 먼저 관계를 맺기 전에 각자가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깨워서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배우자가 달라붙었고, 아버지와 딸이 달라붙었고, 엄마와 아들이 달라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틈새를 벌리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딸이, 하나님과 엄마가, 하나님과 아들이 각각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달리다 굼!' 하시면서 깨워서 하루를 더 허락하시면 그 한도 내에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관계를 맺고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틈새시장을 노립니다.
내가 틈이 없게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그것과의 관계에서 틈을 내세요!
그래야 하나님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천국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십자가를 통한 죽음에서 틈새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에 틈이 없이 붙어있는 모든 사랑하는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틈이 벌어지게 하시고 그 틈으로 우리 하나님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나도 내가 사랑하는 그것도 각각 하나님의 오른손 왼손에 붙잡혀서 이끌림을 받으며 관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